

Prologue

온양 행도성은 1995년 아산시과의 시군 통합 전까지 온양시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으며, 아산이라는 정식 행정구역이 온양이라는 지명이 주민들에게 더 친숙하게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온양온천역 부근은 수도권 도량형에 인접한 교통 요충지이며, 온양항공-성동 아산시 국제 등교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온천이 중심이었던 온천역의 관공도 복원과 연계하여 온천역으로 인하여 남북의 사회적 단절 등의 이유로 지금은 노인들이 살고 젊은이들이 부족한 지역이 되었다.

온이 가진 역사 문화 콘텐츠로 떠난 기억을 불러오고, 단절된 남북을 잇고, 사람들이 온양을 찾기 위해 온양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제시한다.

Condition



Strength 풍부한 역사 콘텐츠

Weakness 고령화된 지역 인구

Opportunity 아산시의 높은 개발 의지

Threat 부족한 문화 체육 시설

History



Residents Interview

60대 남성 / 전통시장 공동대표: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건물들을 재생시키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40대 여성 / 양성평등 거리활성화 이사장: 온양온천역의 거리를 활성화하고, 골목길을 살렸으면 좋겠다.

50대 남성/아산시 건축사무소 소장: 아산시의 역사성을 살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Site Status



Concept



Strategy



기존 온천천, 온양행궁, 온천천 복원 (도로에 표시해 둔 과거 온천천의 흔적)

온양항공 복원도에서 보인 옛 온천천 그 흐름을 재생하다

온양 고유의 역사와 항공 소개 및 연계 콘텐츠를 겸비한 도시 재생의 아이콘, 온양 역사 박물관 마을

온양 박물관 마을, 아산 시립 미술관, 온양온천역, 온양실내체육관

전철역 육교를 통한 지역 활성화 걸어서 주요 시설까지 이동 (cf. 네덜란드 루크싱 육교)

온천천의 발원지 중 하나로 예측되는 구릉지 물결 모양 건물과 지형 살린 공원으로 걷고 싶은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던 실내체육관 접근성 높은 역 근처에 드디어 등장

온양(溫陽)과 아산(牙山) 재생의 물결

- 개성 있는 온양온천역 역사·문화지구 만들기 -

